

수·당시대 고구려의 수도와 서쪽 강역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차례

1. 머리말
2. 수, 당시대 고구려의 수도
3. 수, 당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4. 맺는말

1. 머리말

한족 역사상 한무제와 함께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되는 당태종(598-649)은 고구려 침략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직언을 잘하는 위징魏徵이 살아있었더라면 목숨 걸고 자신의 고구려 침공을 만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다. 발해만을 끼고 앉아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천하의 당태종 이세민이 함부로 덤비다가 혼 줄이 나서 달아났던 고구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이런 대륙의 지배자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서기 589년 남북조의 분열국면을 수습하고 중국 통일을 이룩한 수隋나라는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도모했다. 612년 수양제(569-618)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향해 진격해왔다. 고구려 영양왕은 을지문덕장군으로 하여금 수나라 군대를 맞아 싸우도록 하여 수의 정예부대인 별동대 30만 명을 살수에서 거의 전멸시켰다.

수양제는 3차에 걸친 고구려 침략을 단행했으나 결국 고구려 멸망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력이 소진되어 집권 38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단명한 왕조로 끝나고 말았다.

618년 고구려 영류왕이 즉위하던 해에 중국의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 제국건설의 야심에 불타던 당태종은 수나라 때 억울하게 죽은 중국 젊은이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다시 고구려 침략을 획책하였다.

이 무렵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여 영류왕과 여러 대신들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다.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왕을 시해한 죄를 묻는다는 구실을 앞세워 645년 요수를 건너 고구려의 평양성을 향해 공격에 나섰다.

손쉽게 승리를 자신했던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60여 일 간 거센 공격을 퍼부었으나 함락되지 않자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복수의 칼을 갈던 당태종은 그 뒤 647년 다시 고구려의 침공에 나섰으나 역시 실패의 쓴 잔을 마셨다.

우리 국사교과서는 고구려의 주몽이 오늘날의 중국 요녕성 환인현의 오녀산성에서 건국을 하고 그 뒤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여기서 400여 년 간 도읍을 하다가 427년 장수왕 때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천도하였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격한 고구려의 평양성은 바로 이 대동강유역에 있던 평양성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건너왔던 요하는 현재 요녕성의 요하로, 용동성은 지금의 요하 동쪽으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거두었던 살수는 청천강으로 비정하여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심부를 대동강유역 평양에 두고 중원에는 진출해본 적이 없는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당 고종시대에 나당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이 한국의 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고구려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수, 당시대 요수, 요동성, 살수와 고구려의 수도 평양, 서쪽강역의 위치는 중국의 『사고전서』에 기록된 여러 사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

수, 당 전쟁은 당시 동아시아를 격변으로 몰아넣은 대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다룬 중국의 기록은 차고 넘친다. 그 기록들 가운데는 고구려가 발해만의 갈석산 일대에서 대륙을 무대로 활동하며 한족과 자랑스럽게 싸운 내

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인용 설명할 방법은 없다.

다만 수양제와 당태종은 고구려 침략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 최고 사령탑이다. 또한 직접 고구려 전쟁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발표는 자료의 인용에서 이들 두 황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록이나 또는 이 두 황제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내린 조서詔書로 한정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이들이 건넸던 요수, 공격했던 요동성, 평양성, 고구려의 서쪽 강역 등의 위치가 지금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척추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침탈을 노리는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한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인 동시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타파하는 요체이기도 하다.

오늘의 발표에는 우리 국사교과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고구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일반국민들은 오늘의 이 발표를 통해 수양제와 당태종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말한 당시 고구려 역사의 진실과 만남으로서 한국사의 오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학계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수·당시대 고구려의 수도

1) 수나라시대 고구려의 수도

:수양제의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로 본 수나라시대 고구려의 수도

원을 통일한 수양제는 대업 8년(612) 고구려를 멸망시켜 복속시키겠다는 야심을 품고 호위 200만대군 실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친정親征에 나선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수양제는 대업 10년(614) 2월 요해遼海 즉 발해만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유해를 거두어 장사지내라는 조서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를 내린다. 바로 612년 살수에서 몰살당한 수나라 장병들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¹⁾

이때 고구려의 평양성이 대동강유역에 있었고 살수가 오늘날의 청천강이었다면 평양을 치러갔던 수나라군대가 압록강이나 청천강 유역에서 전사하지 왜 발해만 부근에서 전사했겠는가.

1) 『사고전서』 「집부」, 『수문기隋文紀』 권2 참조.

이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를 통해서 수양제가 정벌하러 갔던 고구려의 평양성은 대동강유역에 있지 않았고 발해만 부근에 있었으며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30만 군대를 수장시킨 살수는 한반도의 청천강이 아니라 하북성의 발해만 서쪽에 위치한 강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된다고 하겠다.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난해에 죄를 묻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켜 장차 요빈遼濱에 도착하려고 하였다.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전략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양양이 흉악함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했다.(往年出軍問罪 將屆遼濱 廟算勝略 具有進止 以諒愾凶 罔識成敗)”²⁾

여기서 “출군문죄 장계요빈出軍問罪 將屆遼濱”은 고구려의 수도가 대동강유역이 아니라 요빈, 즉 발해의 해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양제가 고구려 공격에 나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요해의 해변가에 있는 고구려 수도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을 즈음 어리석고 흉악한 양양이 반란을 일으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수양제가 말하는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발해의 해변이란 구체적으로 지금의 어느 지역을 가리킨 것일까. 하북성 진황도시 창려현을 가리킨다고 본다. 무엇을 근거로 오늘날의 창려현이 당나라 때 고구려의 수도가 있던 곳이라고 비정할 수 있는가.

남송 때 학자 왕응린王應麟(1233-1296)이 쓴 『통감지리통석』의 「진晉19주」 조항에 “평주는 창려현을 치소로 하였다. 한나라의 요서군 교려현 지역이고 당나라 때는 안동부가 설치된 곳이다.(平治昌黎 漢遼西交黎 唐安東府)”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당나라 고종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설치한 안동도호부가 창려현 지역이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창려현은 현재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관할 현이다. 하북성 동북부에 위치하여 발해의 해변가에 위치해 있다. 수양제가 말한 말한 요빈遼濱, 즉 발해의 해변이란 말과 정확히 부합된다. 수양제가 고구려의 수도가 발해의 해변에 있다고 한 말과 『통감지리통석』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곳이 창려현이었다는 말을 종합해 본다면 수, 당시대에 고구려의 수도는 현재의 발해변 창려현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는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진다.

2) 이와 동일한 내용이 『수서』 권4, 수양제 대업 10년 2월 조항에 기록되어 있다.

“드디어 사망자가 많아 미처 다 매장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마땅히 사람을 보내 도별로 나누어 거두어 장사지내도록 하되 요서군에 제단을 설치하고 도장한 곳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遂令死亡者衆 不及埋藏 今宜遣使人 分道收葬 設祭於遼西郡 立道場一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수나라가 대패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그들의 시체가 들판과 물가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수양제는 사람을 보내 각 도별로 사망자를 분류하여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주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수양제는 요서군에다가 분향소 한 곳을 차리고 거기서 저들 사망자의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

수나라시대의 요서군은 오늘날의 요녕성의 요하 서쪽이 아니라 하북성 동남쪽에 있던 요서군을 가리킨다. 수나라 초기에는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서쪽 옛 고죽국 지역에 요서군이 있었다.

이때 만일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대동강유역에 있었고 대동강 서쪽 청천강일대에서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군에게 참패했다면 오늘날의 압록강유역이나 요하의 동쪽 요동지역에다가 전망자의 빈소를 차리라고 하지 왜 하북성의 요서군에 빈소를 차려 전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려주라고 했겠는가.

수양제가 살수에서 참패하고 나서 내린 ‘수장요해전망조收葬遼海戰亡詔’를 통해서 볼때 당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대동강유역이 아니라 발해만 부근, 즉 발해의 해변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수양제의 ‘재벌고구려조再伐高句麗詔’로 본 수나라시대 고구려의 수도, 환도

수양제는 서기 612년 고구려를 정벌했으나 실패한다. 수양제는 614년 제2차 고구려 정벌에 나선다. 이때 재차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재벌고구려조’를 내린다.³⁾

조서의 내용에는 앞에 “지난해 군대를 출동시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 (去歲出軍 問罪遼碣)”라는 말과 뒤에 이번에는 “환도에서 말을 먹이고 요수에서 열병식을 하겠다.(秣馬丸都 觀兵遼水)”라는 표현이 나온다.⁴⁾

여기서 ‘관병觀兵’은 오늘날로 말하면 열병閱兵 의식과 같은 것이다. 『춘추좌전』「선공」12년 조항에 “관병식을 통해서 제후들에게 위엄을 보인다.(觀兵以威諸侯)”라는 기록이 있다. 춘추시대에 군대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필승의 의지

3) 『사고전서』 「집부」, 『수문기隋文紀』 권2 참조.

4) 이와 관련된 상세한 기록은 『수서』 권4, 수양제 대업 10년 2월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를 다지는 용도로 관병의식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재벌고구려조’에서 수양제가 말을 먹이겠다고 말한 ‘환도’는 고구려의 수도를 가리킨다. 열병식을 하겠다고 말한 요수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국경선에 위치했던 요수 즉 지금의 하북성 남쪽의 역수를 가리킨다.

“환도에 가서 말을 먹이고 요수에서 열병식을 하겠다”는 수양제의 이 말을 두고 혹자는 이 ‘환도’는 압록강유역의 ‘환도산성’을 가리키고 ‘요수’는 요녕성의 ‘요수’를 지칭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수양제는 “지난해 군대를 출동시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去歲出軍 問罪遼碣)”라고 분명히 말했다. 앞에 이 말이 없다면 “환도에서 말을 먹이고 요수에서 열병식을 하겠다(秣馬丸都 觀兵遼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問罪遼碣)”라는 말이 앞에 있는 이상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물었으나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수와 갈석산으로 고구려를 치러 다시 출발하면서 “환도에 가서 말을 먹이고 요수에 가서 열병식을 하겠다”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다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병요수觀兵遼水”의 ‘요수’는 앞의 문죄요갈問罪遼碣의 요수, 즉 갈석산 부근의 요수여야하고 이 “말마환도秣馬丸都”의 환도는 갈석산 부근의 환도여야 하는 것이다.

양서梁書 권 54 고구려 조항에는 “고구려의 강역이 2천리쯤 된다. 중심부에 요산이 있고 요수가 거기서 발원한다. 그 왕은 환도의 아래에서 도읍하고 있다. (句麗地方可二千里 中有遼山 遼水所出 其王都於丸都之下)”라고 나온다. 고구려의 국가 중심부 즉 수도에 요산이 있고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하는데 고구려의 왕은 이 요산과 요수가 있는 환도에 도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한시대의 학자 고유高誘는 『회남자』에 나오는 요수의 주석에서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다”라고 말하였다. 고유의 설명에 따르면 요산은 갈석산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 당 이전의 갈석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기』「소진열전」에는 하북성 남쪽 역수 부근에 안문산과 이웃하여 갈석산이 있다고 말하였다. 남북조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유신은 하북성 남쪽의 역수를 요수라고 말하였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본다면 수양제가 재차 고구려를 정벌하러 떠나면서 열병식을 하겠다고 다짐한 요수는 지금의 요녕성 요하가 아니라 하북성 남쪽의

역수이고 말을 먹이겠다고 말한 고구려의 수도 환도는 길림성 집안현이 아니라 갈석산 동쪽 발해만의 물가 즉 요빈遼濱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발해만의 바다 가 해변, 수양제가 ‘수장요해전망조’에서 말한 요해의 바다가 요빈遼濱이 수나라시대에 고구려 수도 환도성이 있던 곳인 것이다.

지금 요녕성 집안현에 환도성이 있다. 그러나 길림성 집안현이나 요녕성 환인현에 과연 갈석산이나 또는 요산, 요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요산도 요수도 없고 갈석산도 없다. 그렇다면 이 환도는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의 고구려 수도 환도는 아닌 것이다. 아마도 집안현의 환도는 고구려가 당 고종에 의해 요해에 있던 고구려 수도 환도가 함락되고 그 뒤 동쪽으로 후퇴하여 거기 정착하면서 하북성에 있던 환도라는 이름도 함께 가져가서 붙여지게 된 지명일 것이다.

2) 당나라시대 고구려의 수도

당태종의 ‘요성망월遼城望月’ 시詩로 본 당나라시대 고구려의 수도, 환도

당태종은 제1차 고구려 정벌에 나서 요동성을 함락시켰다. 당태종이 ‘요성에서 달을 바라보다 (遼城望月)’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가 전해지는데 이 시는 이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는 서두가 “달이 휘영청 밝으니 맑은 빛이 요수와 갈석산을 비춘다. (玄兔月初明 撥輝照遼碣)”로 시작되고 뒤에는 “수레를 멈추고 환도성을 굽어 보고 우두커니 서서 요망한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관망한다.(駐蹕府丸都 佇觀妖氛滅)”로 끝을 맺는다.⁵⁾

여기서 앞 글귀의 ‘현토’는 달을 가리킨다.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달의 별칭을 ‘현토’라고 호칭한다. 뒷 글귀에서 주필駐蹕의 필은 본래는 고대사회에서 제왕이 외출할 때 먼저 경호 인력을 파견하여 연도에 행인이 지나다니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가리킨다. 뒤에는 제왕이 외출할 때 왕이 탄 수레가 중간에 잠시 머무는 지방이나 또는 제왕의 수레를 직접 가리키는 의미로도 전용되었다. 여기서는 당태종이 탄 수레를 가리킨 것이다. 요분妖氛은 상서롭지 못한 기운으로서 흔히 재앙이나 환란에 비유되는데 여기서는 고구려를 지칭한 것이다.

이 시는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는 요동성의 위치이다. 그동안 우리는 당태종이 공

5) 『사고전서』 「집부」, 『어정패문재 영물시선御定佩文齋 詠物詩選』 권3.

격했던 요동성이 압록강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 시는 요동성 위에 뜬 달이 요수와 갈석산을 밝게 비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요녕성 요하의 동쪽에는 당나라시대에 갈석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는 당태종시대의 요동군은 압록강서쪽에 있지 않았고 하북성의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둘째는 고구려 환도성의 위치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구려의 환도성은 지금의 길림성 집안시에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런데 이 시는 요수와 갈석산이 있는 요동성에서 당태종이 수레를 멈추고 환도성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길림성 집안시 부근에는 요수도 갈석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당태종이 말하는 환도성은 지금의 길림성 집안시 환도성이 아닌 하북성에 있던 환도성을 가리킨 것이 분명한 것이다.

당태종이 이 시를 쓸 당시 고구려의 요동성은 당나라 군대에 함락되어 당나라 수중에 들어갔다. 정관 22년 당태종이 1차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재차 고구려 공격에 나서려할 때 당나라의 명재상 방현령房玄齡은 상소를 올려 극구 말렸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친히 6군을 통솔하고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으셨다.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곧바로 요동성을 함락시켰다.(親總六軍 問罪遼碣 未經旬日 卽拔遼東)” 이는 당태종의 1차 공격 때 고구려의 요동성이 함락된 사실을 알려준다.⁶⁾

그러나 발해만의 해변에 위치한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은 채 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태종은 요동성에서 밤을 맞으면서 요동성 위에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함락시킬 결의와 기대를 담아 이 시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당태종의 시 내용 가운데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나 대동강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수와 갈석산이 나오고 환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 고구려 수도가 지금의 대동강 유역 평양이 아닌 요수와 갈석산 부근에 있었으며 그곳이 환도성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 시는 당나라 이전이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시인에 의해 쓰여진 시가 아니고 고구려시대에 고구려 전쟁에 참여했던 당태종이 직접 쓴 시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와 신빙성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확실하다고 하겠다.

3. 수, 당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6) 이에 관하여는 『구당서』 「방현령전」과 『정관정요』 권9 정관 22년 조항 등에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

1) 수나라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구당서舊唐書』「배구열전裴矩列傳」의 기록으로 본 수나라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구당서』「배구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황제를 따라서 만리장성 북쪽에 순행하여 계민啓民 칸의 막사에 행차하였다. 그 때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먼저 돌궐과 내통하고 있었다. 계민이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없어 고구려 사신을 데려다가 황제를 알현하도록 하였다. 배구가 그 사실로 인해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서주시대에는 이곳을 기자에게 봉했고 한나라 때는 삼군으로 나뉘었으며 진나라시대에는 요동군에 통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고 외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인 문제께서도 오랫동안 정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양양의 불초함으로 인해서 군대를 출동했으나 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하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찌 이 일을 도모하지 않고 관대冠帶의 지역이 만맥蠻貊의 땅이 되도록 그대로 놓아 둘 수가 있겠습니까.’ (從帝巡于塞北 幸啓民可汗帳 時高麗遣使先通于突厥 啓民不敢隱 引之見帝 矩因奏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箕子 漢時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列爲外域 故先帝欲征之久矣 但因楊諒不肖 師出無功 當陛下時 安得不有事於此 使冠帶之境 仍爲蠻貊之鄉乎)”

배구는 수, 당 양대에 걸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국가의 중신이다.『구당서』「배구열전」에 나오는 이 기록은 수양제 대업大業 3년(607) 배구가 수양제를 수행하여 돌궐의 지도자 계민의 처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거기에 먼저 와 있던 고구려사신을 발견하고 배구가 수양제에게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배구가 수양제에게 올린 건의문 가운데는 다른 중국의 정사正史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의 상, 고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우리는 서주시대의 기자조선이 대동강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 기록은 기자조선이 백이, 숙제의 나라 고죽국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은 대동강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강단사학계는 지금까지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한무제 때 설치한 한의 삼군(처음에 삼군이었다가 나중에 사군으로 됨)이 고죽국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셋째 그동안 우리 강단 사학은 요동군은 지금의 요녕성 요하 동쪽에 줄곧 있었던 것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진썽나라 때는 고죽국지역이 요동군에 소속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자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수나라시기에 고죽국지역이 중원의 강역이 아닌 외국의 땅 즉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다고 설명한 점이다.

이 자료에서 배구가 고죽국 땅을 두고 “지금은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고 외국의 강역으로 되어 있다”거나 “관대(중원)의 강역을 계속해서 만맥(고구려)의 터전으로 놓아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고죽국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죽국은 서주가 은을 멸망시키자 거기에 반기를 들고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백이, 숙제의 나라이다.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일대가 그 지역이다.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현재의 노룡현에는 백이와 숙제가 독서하던 곳, 백이 숙제의 사당, 수양산 등 고죽국의 백이, 숙제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옛 고죽국 땅 현재의 하북성 진황도시 일대가 수양제시대에 모두 고구려의 강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구당서』 「배구열전」의 기록은 수, 당시대에 고구려가 하북성 서남쪽에서 수, 당과 국경을 마주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고구려의 서쪽 강역이 하북성의 산해관 서쪽 지역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면 강단사학은 사이비역사학자로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수, 당시대에 산해관을 넘어 하북성의 서남쪽 일대가 고구려의 서쪽 강역이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 자료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어느 시골 선비의 독백이 아니라 수나라 당시 황제인 양제와 대신 배구, 즉 최고 권력자 간에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것이 『구당서』라는 중국의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어떤 논리로도 결코 폄하될 수 없다고 하겠다.

2) 당나라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당태종 이세민의 ‘토고구려수조討高句麗手詔로 본 당나라시대 고구려의 서쪽 강역

당태종 이세민은 당고조 이연李淵과 두황후竇皇后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626년 현무문玄武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의 형 태자 이건성李建成과 아우 이원길李元吉 및 그 일당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쟁취한 이세민은 즉위한 뒤에 안으로 국태민안을 이루고 밖으로 넓은 강토를 개척하여 중국역사상 저명한 정관지치貞觀之治를 이룩했다.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고창, 귀자, 토곡혼을 정복시키고 고구려를 정벌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당태종은 645년(정관19년) 2월 고구려와의 전쟁을 개시했는데 그에 앞서 644 (정관18년) 10월에 당태종이 직접 쓴 토고구려 수조討高句麗手詔가 전해진다.⁷⁾ 여기에 “문죄요갈問罪遼碣”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수양제의 ‘재벌고구려조’에도 등장하는 이 ‘요갈’은 요수와 갈석산을 가리킨다.

당태종 당시에 고구려가 대동강유역에 있었다면 “문죄대동강”이라거나 “문죄백두산”이라고 해야지 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겠는가.

당태종의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는 “문죄요갈問罪遼碣”은 비록 글자 네 글자 밖에 안 되지만 당시 고구려의 서쪽 강역이 요수와 갈석산 즉 오늘날의 하북성 남쪽 역수유역과 백석산 일대였던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세의 역사가가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을 다룬 기록이 아닌 당시에 고구려 전쟁에 참여했던 당태종의 조서이고 또 당태종이 직접 손수 작성한 수조手詔이기 때문이다.

4. 맺는말

우리 역사학계는 수, 당이 공격한 고구려 수도가 대동강유역 평양에 있었고 을지문덕장군이 살수대첩을 이룬 장소가 청천강이었으며 고구려의 요동성이 압록강 서쪽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국사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의 전쟁의 당사자인 수양제나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면서 쓴 조서와 당나라 당시의 기록인 구당서에는 고구려의 수도 환도는 갈석산 동쪽 발해만 부근 해변에 있었고 요동성은 갈석산 가까이에 있었으며 고구려의 서쪽 강역은 옛 고죽국 땅 지금의 하북성 진황도시 노룡현 서남쪽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7) 『당대조령집』 권 130, 「토고려조」 및 『자치통감』 권 197, 「당기」 13, 정관 18년 조항 참조.

광복 70년동안 한국의 강단 사학에서 고구려에 관해 발표한 논문은 아마도 수 천편에 달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필자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강단사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일찍이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강단사학은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다룰 때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양제, 당태종, 『구당서』의 기록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가.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관련 사료로서는 수양제, 당태종의 조서詔書와 『구당서』가 1차 사료에 해당한다. 이런 1차 사료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먼저 1차 사료를 검증하고 그것의 오류를 지적한 다음 새로운 이론을 펼쳐야 사리에 맞다.

그런데 이런 일차 사료는 광복 70년이 되도록 한번 거들 떠 보지도 않은 채 청천강 살수설, 대동강 평양설 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실증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상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강토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역사영토마저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으로 축소시킨 꼴이 되었으니 이 무슨 못난 짓이며 이 무슨 창피한 노릇인가. 우리가 이러고서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역사영토를 늘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축소하지 못해 안달이 났으니 우리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이 원흉이다. 식민사관의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21세기에 과연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경제발전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발해만을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한 고조선과 고구려의 민족혼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정치발전도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경제가 10년 가까이 2만불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3만불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만족하고 갈석산과 요수에서 한족과 국경을 마주하며 침략자 당태종을 무릅 꿇린 고구려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아시아의 맹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발해와 갈석산의 기적을 이룩했던 고구려의 정신과 기상을 회복해야 한다. 손 바닥만한 한반도 안에서 우리끼리 남북으로 갈리고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져 박이 터지게 싸우는 못난 한국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륙의 주인으로서천하를 경영했던 고구려와 고구려인의 바른역사를 세워야한다. 바른역사, 특히 고구려

의 바른역사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38선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길
요 압록강을 넘어 강대국으로 비상하는 첫 걸음이다.